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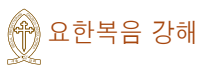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 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인 : 손달의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우리들의 쟁론 II

(요 7:40-44)

이종윤 원로목사

본문은 예수로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쟁론은 단순한 토론 정도가 아니고 피차에 분열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2. 불신자들과 신자들 간의 분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요 7:43)

(1)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간에는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며 이 세상 방법과 표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충성하며 살고 육체의 욕심과 자랑을 위해서 삽니다. 그들은 또한 분법의 자식들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신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새 생명, 곧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옛사람이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방법과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옛사람, 불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표준으로 삼고 사는 새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랑하는 것을 분도와 같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새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별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보면 됩니다. 옛사람은 자기를 신뢰하고 새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옛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형편에 따라 자기 지혜로 시작하려고 하지만 새사람은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일을 시작합니다. 또한 새사람은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가 되지만 옛사람은 자신이나 자신에게 연관된 사람과 피조물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얻어진 생명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자기에게 속한 생명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명이란 생(生)자에 명령한다는 명(命)자를 씁니다. 생명이란 살라고 하는 명령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20)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몸은 하나님

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고전 6:19).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식기도를 할 때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중심의 기도입니다. 거기까지만 하지 말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육신과 영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또 “우리 아들을 대학에 붙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말고 “대학에 붙게 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하도록 해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바라는 목적은 그러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목적을 가지고 쫓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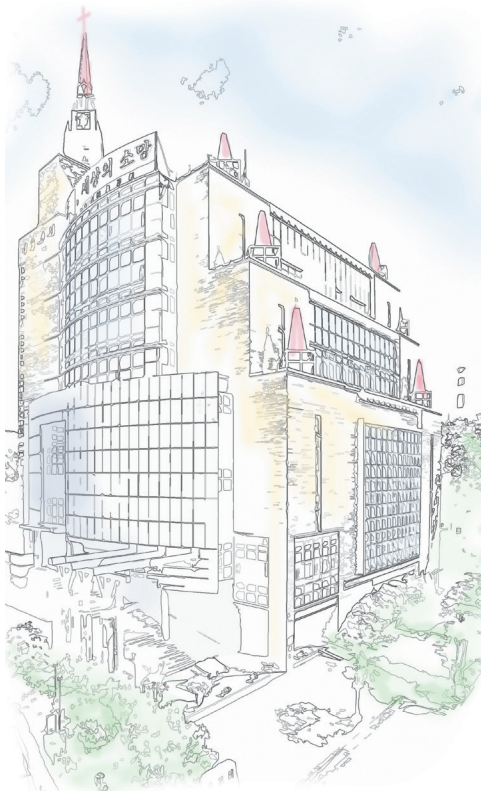
3. 신자들의 연합

세상을 둘로 나누면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과 북으로 나눕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가난하고 북쪽에는 유물을 비롯하여 전부 부하게 산다고 어떤 경제학자는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종의 색깔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언어로 나누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인류학자는 남자와 여자로 나눕니다만 인간을 나누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어느 편입니까? 누구와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와는 갈라서고 성도끼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끼리 연합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갈 3:28). 종이냐 주인이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어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사람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온 지체가 같이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함께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지체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한국 교회에서부터 일어나서 아시아와 온 땅의 교회에 편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 장로 예비후보 20명 선출을 위한 제직회 개최한다

- 이후 공동의회에서 최종 10명 선출 -

당회는 지난 10월 정기당회에서, 앞서 서울 강남노회로부터 허락받은 서울교회 제15대 장로 10명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예비 후보 20명 선출을 위한 제직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직회에는 서울교회 정관 제7조 1항에 따라 부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협동장로, 협력장로, 협동집사, 협동권사, 서리집사 등이 회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당회가 제시하는 장로후보는 서울교회 운영규정 제5조 3항에 정해진 교회제직 선출 기준에 따라 서울교회에 출석 중인 만40세 이상의 안수집사, 권사 전원이 해당되고

오늘 임직순, 연령순으로 번호를 정하여 그 후보 명단을 배포한다.

제직들은 한 주간 동안 배포된 명단을 잘 살펴보고 기도한 후 다음 주 제직회에서 서울교회 장로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예비후보 20명을 선정하여 기표하면 되고 이후 개최되는 공동의회에서 최종 장로후보 10명이 피택되게 된다.

한편 이후 공동의회를 통하여 피택되는 장로는 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노회의 위탁교육과 당회의 훈련

을 받고 내년 봄노회 전에 실시되는 노회고시에 합격한 후 정식 장로로 임직하게 된다.

따라서 본래 서울교회 운영규정상 장로후보는 임직 후 최소시무 기간 2년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하지만 당회는 그동안의 교회분쟁기간을 고려하여 위 최소시무 기간 2년 규정은 적용하지 않되, 다만 임직 당해연도인 내년도 은퇴 예정자(1952년생)는 제외하기로 하여 1953년 이후 출생자만 그 대상이 되었음을 양해하기 바란다.

또 이 제직회에서는 득표순, 임직순, 연령순으로 예비후보 20명을 선출하여 공동의회에 추천하되, 20명 중 개인사정 상 사퇴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올려 2배수 20명을 채우게 되며, 이후 위 선출된 예비후보 20명을 대상으로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2/3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장로후보 10명을 제15대 장로로 피택하게 된다.

교회 회복을 위하여 할 일 많은 서울교회에 주의 신실하신 일꾼들이 예정한 숫자만큼 장로로 꼭 피택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라고, 아울러 모든 선거 일정이 순조롭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낮 예배 모든 성도들 참석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위드 코로나 체제 전환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일부 변경되어 코로나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이 확대되었다.

지금까지는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까지만 참석이 가능했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전체 수용 인원의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에는 수용 인원의 20%까지 참석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교회에서

는 건강 상 접종을 마치지 못한 미 접종 성도들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때 예배당 수용인원의 10%인 약 3백 명 이상의 참석이 가능하게 되어 교회에서의 대면예배에 참석을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예배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2021 사명자대회를 진행하면서 기도와 전도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할 이 시기에 성도들의 주일을 비롯 모든 예배 참여가 더 확대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21 성경암송대회 일정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변경으로 더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참석을 원하는 성도들은 김승록 집사(교육위원회 서기)에게 연락 바란다.

- 참석 신청 : 김승록 집사(010-9588-7920)
- 암송범위 : 요한계시록 1-5장
- 일반부 본선 : 11월 13일(토) 오후 2:00
- 교회학교 본선 : 11월 14일(주)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4일(주) 찬양예배 시에 암송한다

2021 성경암송대회 일정 변경

범위 : 요한계시록 1-5장



온라인 현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 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쟁 중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서울교회!

- 수기 및 간증 공모 -
10월 31일(주)까지 수시 접수

1. 목적

교회 분쟁 시 성도들 개인적으로 아픈 기억이나 감동적인 사연을 글 또는 동영상으로 만들어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고자 함

2. 일정 : 2021.6.1 - 2021.10.31

3. 진행 방법

- 수기형: 손글씨로 써서 사무국에 비치된 수기 공모함에 제출
- 동영상: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USB 저장매체로 제출
- 온라인: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4. 평가 방법

- 당회, 스테반회, 권사회의 각 2명과 분쟁 백서 담당자 심사위원
- 교회 분쟁에 대한 개별적 경험과 신앙적 감동이 사실적 표현으로 작성된 수기 또는 동영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기도 대상자들
- 이준우 정건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황수지(육사생도) 유성혁 소준 백승규 최윤학 이강현 유성근 심준규 허성강 장하람 옥준용 김정규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2021 사명자대회

담임목사님과 함께 한 "1인 1사랑의 실천"

서울교회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선정하고 교회 회복의 시작을 알린 바 있다. 또한 이번 사명자대회는 "1인 1사랑의 실천"을 네 가지의 행동강령 중 하나로 삼고 이웃섬김을 실천하고자 진행 중이다. 그 시작을 손달의 담임목사와 교역자들이 알렸다.(순례자 주)



2021 사명자대회 50일 동안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1인 1사랑 실천을 논의한 결과 교역자들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 빈곤운동에 뿌리를 두고 자생적으로 시작된 공부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는 4,107개소가 있고 이용 아동은 106,668명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한 기타 문제로 조손 가정 또는 결손 가정이 되어 사랑이 부족한 아이들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

는 아이들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강남구에 네 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정원 29명(초등학생-고등학생), 보조교사 2명, 봉사자와 센터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탐방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상황 등을 파악했고 그중 세 곳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10월 12일(화), 담임목사님과 함께 3그룹으로 나누어 라면과 과자, 음료수를 전달했습니다. 센터장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아이들이 외부 활동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센터 안에 29명 전체를 수용할 수 없는 점, 봉사자들이 줄어든 점, 후원의 손길이 끊긴 점, 임대료 걱정 등등 많은 어려움에도 코로나 이후 600번째 예배 때부터 아

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서울대, 한양대, 고대를 입학했을 때 큰 보람을 느끼셨다는 간증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함께 할 때 아이들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잠깐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2021 사명자대회 50일 동안 일어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지역아동센터 사랑의 실천을 나누고 싶은 성도님들께서는 연락 주십시오.

박미라 전도사

2021 사명자대회와 교회학교

서울교회 교회학교의 사명과 사명자대회



장윤기 집사
(2021 사명자대회 교육분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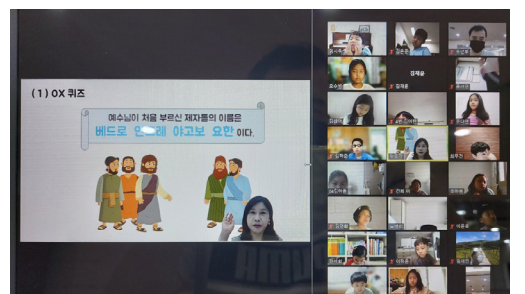
저는 올해를 포함해서 교회학교 부장/부감을 한지 9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5년간의 교회 분쟁을 겪었고 2년간의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로였겠지만 두 가지 모두 교회학교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아픔과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분쟁 당시에는 협소한 공간과 시간적인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코로나가 시작되니 공간이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교회는 회복되었지만 모이지 못하니 장소가 의미가 없었고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오지 말고 온라인으로 만나자"라는 광고를 보내야 했습니다.

교회에 오지 말라고 광고해야 하는 시기에, 교사로서의 사명은 무엇인지 고민스럽습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말씀을 읽고 경청하고, 언행 일치의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해 어

린이들에게 참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하지만 ZOOM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자질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ZOOM 활용 능력으로 판단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고 하지만, 교회학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기대와 함께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회 설립 때부터 지켜온 사명자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오직 믿음"과 "50일간의 기도"로 준비한 서울교회가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이 기도 합니다. 교회를 창립하는 마음으로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과 부모님, 학생들이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기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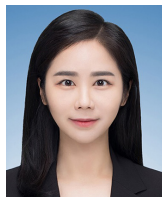
서울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다음세대를 기르는 서울교회 교회학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년부의 비대면 예배(위)와 비대면 공공공부(아래)

세례를 받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



공해원 성도
(5교구)

작년 여름, 결혼을 몇 달 앞두고 지금의 남편을 따라 처음으로 서울 교회에 발걸음 했던 기억이 엇그제처럼 생생한데, 서울교회의 일원이 된지도 어느덧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

다.

사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 34년간 신앙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 굳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고, 이후 운명처럼 신앙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해보면 오랜 기간 무신론자였던 제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교회의 많은 것들이 생소하고 때때로 어색하기도 하였지만, 4주간의 새가족교육, 첫 주일예배, 이종윤 원로목사님께서 주례를 보아주신 결혼예식,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세례교육까지, 감격스럽고 축복된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회에 나오게 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래 지속되었던 교회의 분쟁이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하였고, 올해는 손달일 목사님께서 새로운 담임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정상화되어가고 있으며 손목사님께서 위임목사님으로 첫 세례식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깊고, 비록 제가 아직 크리스찬으로 불리기에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싶은 마음에 이번 세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장로와 권사이신 시부모님, 그리고 피택안수집사인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기독교인이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과는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며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배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면서, 대면 예배도 여의치 않은 시간들이 많고, 성도들 간의 교제나 교회 내의 여러 봉사활동 역시 경험할 기회가 부족하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 대면 예배도 활성화되고 저 역시도 교회 내에 제가 필요한 곳에서 봉사의 소명을 다하고 싶은 바램입니다.

부족한 저를 서울교회의 성도로 받아들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남편과 믿음의 가정 잘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피택집사 및 피택권사 2차 교육 일정 변경

| 일시 | 교육과목 | 강사 |
|-------------------|-------------|-----------|
| 대면교육 가능할 시로 연기 | 총회헌법과 교회규정 | 당회(기획위원회) |
| | 교회행정 및 회계처리 | 당회(기획위원회) |
| 10월 31일 | 과제물제출 | 당 회 |
| 11월 14일 | 당회고시 | |
| 추후공지 | 당회원 면접 | |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0. 21 (목) 여호수아회 특별세미나 강사로 강의한다.
- 떡 제공 : 이관규 장로 · 이순영 권사 가정 (손자녀의 입교를 감사드리며)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21 사명자대회 기간에 말씀 실천과 기도 에 힘씀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2. 서울교회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되게 하시고, 15대 장로 선출 과정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3. 복음화된 통일 조국 이루어져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소서.

전교인 성경읽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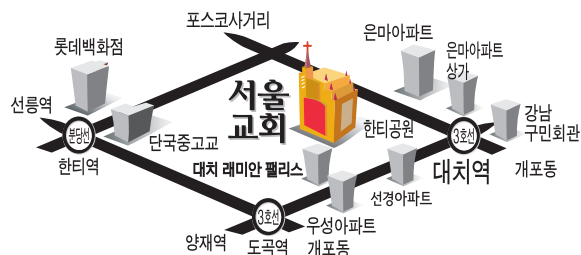
교구(부서): 이름:

| 일 자 | 요일 | 1년 1독 | 확인 | 1년2독 | 확인 |
|--------|----|------------|----|---------|----|
| 10월18일 | 월 | 눅 14-16 | | 렘 37-46 | |
| 10월19일 | 화 | 눅 17-18 | | 렘 47-52 | |
| 10월20일 | 수 | 눅 19-20 | | 애 1-5 | |
| 10월21일 | 목 | 눅 21-22 | | 겔 1-7 | |
| 10월22일 | 금 | 눅 23-24 | | 겔 8-15 | |
| 10월23일 | 토 | 요 1-2 | | 겔 16-20 | |
| 10월24일 | 주일 | 요 3:1-4:45 | | 겔 21-27 | |

■ 예배 및 집회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9시 | 본당 |
| | II 부 예 배 | 오전 11시 20분 | |
| | III 부 예 배 | 오후 2시 | |
| | 찬 양 예 배 | 오후 5시 | |
| | English Worship | 오전 11시20분 | 웨스트민스터 홀 |
| 수 요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11시 | 본당 |
| | II 부 예 배 | 오후 7시 | |
| 새 벽 기 도 회 | 오전 5시 30분(월 - 토) | 웨스트민스터 홀 | |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